

(사) '사랑의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 ▶ (사) '사랑의 친구들'은 가난하고,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따뜻한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인권존중, 평화증진, 자연을 지키고 사랑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 ▶ (사) '사랑의 친구들'에 대한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 ▶ 여러분의 지원은 후원사업에 100퍼센트 쓰입니다. 소수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위해서는 운영비로 지원되는 일정금액만 사용됩니다. (회원서 작성시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 ▶ 경제적인 지원 외에도 자신의 시간과 전문성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 회비 납부방법으로 지로를 선택하실 경우 지로용지가 회

지 발송시 함께 발송됩니다. 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지로 용지를 이용하여 납부하실때 지로번호와 연락처를 꼭 적어 주세요. (지로번호 : 6955942)

▶ 회비납부계좌

예금주: (사) '사랑의 친구들'

- 사업후원 : 외환은행 211-13-07835-6
한미은행 531-00455-245
국민은행 343637-04-000358
- 운영후원 : 한미은행 531-00437-243
국민은행 070-25-0036-444
- 문의전화 : (02)734-4945~7

발행인 : 김성수
서울 종로구 옥인동 47-483
Tel : (02)734-4945~7
Fax : (02)734-4948
E-mail : folove831@korea.com
Homepage : www.friends.or.kr

사랑의 친구들

Friends of Love

2006년 6월 / 통권 제

23호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김 정 열 (본회 기획자문위원장,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사무총장)

모처럼 휴일다운 휴일을 보내고 있는데 아내의 목소리에 쇠가 들어 있다. 화장실 냄새의 원인제공자에게 가장으로서 한소리 해야 한다는 의미리라. 아파트 화장실 구조는 소변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변이 여기 저기 튕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아들놈이 사용 할 때마다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이 여간 고역이 아니리라.

아들과 산책이나 하겠다면 데리고 나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주고 아파트 벤치로 돌아와 말했다. “앉아서 오줌 싸면 안 되겠니” “남자가 어떻게 여자처럼” “남자 간호사도 있고, 육군사관학교에도 여학생이 수석졸업생이지 아파” 몇차례 주의를 환기시키면 최소한 집에서라도 앉아서 소변을 볼 것 같다.

몇 년 전부터 앉아서 소변보는 것이 습관이 된 아빠와 이제 막 시작할 아들, 이제 우리 집의 전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덧붙여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인격이 바뀔 수 있음을 아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교육적 기대도 하게 된다.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진 자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위렌 버핏이 개인 재산의 85%인 370억 달러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 놓았다고 한다. 액수에 대한 놀라움도 있지만 소외계층,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버리고 매 맞는 아이들, 물 부족과 식량 부족에다 에이즈 등 각종 전염병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인들을 위해 애써 모은 재산을 기부하는 행위를 선진국 국민들은 자부심으로 여긴다고 한다.

우리는 어떤가. 열심히 돈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인생의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심지어 교육을 받는 목적도 자기 앞가림이나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없는가. 그렇다면 미래가 막막하다.

다행히 '사랑의 친구들'의 회원들은 어려운 이웃을 도울 방법을 찾는데 열심이다. 소외된 아동들과 사랑의 온기를 함께 나누기 위한 갖가지 지혜를 모으는 일을 좋아서 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다행이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거나 손해만 보는 일이 아님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섯 명의 젊은이들의 유쾌한 여행기를 담은 영화 '익스트림 데이즈'에서 유일한 여성 멤버인 제시카는 이리저리한 과정을 통해서 브라이언을 사랑하게 된다. 남자 사귀는데 마음 문을 닫아버린 제시카가 얼어붙은 가슴을 열기 시작한 계기는 힘세고 머리 회전 빠르고 돈 잘 쓰는 모습에서가 아니다. 가진 돈 다 털어서 구입한 당장 먹을 음식을 마트 입구에서 구걸하고 있는 세 모녀에게 몽땅 주어버리는 브라이언의 따뜻한 행동에서 제시카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

나눔의 행동은 물질 대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이다. 나눔의 행동 바이러스는 살맛나는 모습으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디딤돌이다. 생각이 바뀌면 어제의 태양, 나무, 직장동료의 모습이 달라 보일 것이다. 나눔의 눈으로 보면 이웃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될 것이다. (*)

일반회원 가입신청서

이 름:	(남 · 여)	
생년월일:		
주택주소:	(우편번호:)	
주택전화:	핸드폰:	
직 장 명:	부서명:	
직장주소:	(우편번호:)	
직장전화:	팩스:	e-mail:
원하는 회비금액(월)(V표를 해주시시오) ☐ 10만원 / ☐ 5만원 / ☐ 1만원 / ☐ 5천원 / ☐ 1천원 / ☐ 기타 원		
회비 납부방법 ☐ 자동이체 / ☐ 지로 / ☐ 일시불 / ☐ 기타 ()		
후원 내용 ☐ 사업후원 / ☐ 운영후원(법인운영지원)		

본인은 '사랑의 친구들'이 되어 우리사회와 세계 각 지역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따뜻한 친구가 되고, 인권, 평화, 자연을 지키고 사랑하는 생활과 일을 할 것입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랑의 친구들 귀중

제 8회 사랑의 떡국 나누기

설날 아침, 떡국 한그릇으로 나누는 사랑

1월 25일, 외환은행 나눔재단과 공동으로 2,300개 떡바구니 전달해



'사랑의 친구들' 이희호 고문이 독거노인 맥을 방문해 떡국 바구니를 전달하면서 인사를 건네고 있다.

'2006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가 지난 1월 25일 광화문 정동제일교회에서 1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이희호 고문, 외환은행 나눔재단 Fallen 이사장, 임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혼자 사는 노인, 소년소녀 가장, 몸이 불편한 분들 등 명절이 더 춥고 쓸쓸한 이들의 가정에 배달된 떡국바구니에는 떡국 떡 1kg들이 3봉지, 국거리용 양지머리 쇠고기 1kg, 완도산 멸치 500g에 (주)대상이 후원한 국물용 감치미가 들어있어 설날 아침 따뜻한

떡국으로 온기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2006 '사랑의 떡국 나누기'는 지난해 11월 9일 첫 준비회의가 열린 것을 시작으로 모두 5차례의 준비회의를 거쳐 총 2,300개의 떡국 구좌를 모금했다. 이번의 떡국 나누기 행사에는 외환은행 나눔재단이 1,000구좌의 떡국 바구니 후원금을 기탁하고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 떡국 바구니 포장에서부터 전달까지 함께 해 더욱 의미있는 행사가 됐다.

1998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

찾아오는 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떡국 바구니가 효자, 효녀

애써서 그리고 정성스레 준비해 주신 떡국떡을 지역사회 독거어르신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늘 그렇지만 혼자서 지내시며 명절을 맞이하는 어르신들을 찾아보면 맘 한편에 서글픈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내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뵈게 되지요. 풍성하게 준비된 떡국 바구니를 보면서 "뭐 이런 걸" 명절에 찾아오는 자식만큼이나 반기셨습니다. 사실 찾아올 이 없는 어르신들께는 이 바구니들이 효자 효녀이지요.

연신 "고마워유" "감사해유" 두손 잡으시는 어르신들을 뒤편 하고 다른 어르신 집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기쁘게 명절을 맞이하도록 해주신 '사랑의 친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눔의지역 복지선교센터)

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는 올해로 8번째. 그동안 떡국바구니를 전달받은 가정이 총 32,257가정, 액수로는 1,103,935,210원에 이른다.

한편 '사랑의 친구들' 고문인 이희호 여사는 행사

후 정동제일교회에서 운영하는 몽골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있는 몽골어린이 한글학교를 찾았다. 이희호 고문은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장갑과 모자를 선물로 전달했다.



성북동 개운산 무료급식소에서 직접 떡국을 끓여 노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있는 '사랑의 떡국 나누기' 자원봉사자들. 이희호 고문과, 외환은행 나눔재단 Fallen 이사장도 함께 참여했다.

따뜻한 웃음을 주는 정겨운 선물 바구니

〈우리마을〉은 강화에 위치한 정신지체인들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입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울려오는 전화벨소리는 다름 아닌 '사랑의 친구들'로부터입니다. 매년 보내주시는 물건들은 아기자기한 맛이 나는 정겨운 위문품들입니다. 기내식, 장갑, 떡국떡 등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라 배시시 웃음이 나는, 즐거움을 주는 물건들입니다. 모쪼록 많은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라며 뒤늦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허아드리 (강화 우리마을)



외환은행 나눔재단은 '2006 사랑의 떡국 나누기'를 공동주최하면서 '사랑의 친구들' 김성수 회장에게 3,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제 8차 정기총회 열려 김성수 회장, 윤장순 운영위원장 등 유임기로

2006년 제8차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4일 오후 1시 서울 옥인동 '사랑의 친구들'에서 열려 3년 임기의 김성수 회장과 윤장순 운영위원장 등 대부분 이사를 유임시켰다. 이번 총회에는 임원과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임원진을 대부분 유임시키고 올해의 사업계획을 검토했다.

이날 총회에서 유임이 결정된 이사는 ▲김성수 회장(성공회대 총장)을 비롯해 ▲김성재(원곡문화재단 이사장) ▲김순자 (전 스위스재보협상임고문)▲김의정(명원문화재단 이사장) ▲김종량(한양대 총장) ▲민병준(한국광고주협회 회장) ▲박 권(한림회계법인 대표) ▲성인숙(전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원) ▲심치선(전 계원여고 교장) ▲윤장순(우당장학회 이사장) ▲이계호((주)STC 회장) ▲이순례(도서출판 명림당 대표) ▲이종옥(5.17가족회) ▲이중근((주)부영 회장) ▲윤현봉(전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인재근(한반도재단 여성위원회) ▲장명수(한국일보 이사) 이사 등 모두 17인이다.

특히 이번 총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의결했던 사옥 구입이 완료되어 말끔히 수리를 끝낸 새 사무실에서 총회가 열리게 되어 참석한 임원과 회원들의 감회가 남달랐다. 올해의 사업계획을 소개한다.

2006년 (사) '사랑의 친구들' 사업내용

1. 프로그램 기획 사업

- 1) 연합 캠프 공모 사업
 - ▶ 학교 등에서 소외되기 쉬운 빈곤 아동들의 공동체 의식과 집단 적응력 향상을 위한 캠프
 - ▶ 개별 공부방으로는 준비하기 어려운 공부방들의 상황에 맞는 연합형태의 캠프지원
- 2) 공부방 어린이와 전문상담사와의 만남
 - ▶ 한국 심리상담연구소 소속 전문상담사의 자원봉사
- 3) 공부방 교사를 위한 교육 및 재충전 캠프
 - ▶ 교육 계획 : 교육 내용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 ▶ 공부방 교사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반기 중 2회
- 4) 서울 초청 행사
 - ▶ 도서벽지 공부방 어린이들의 서울 초청
- 5) 북한 및 해외 아동 지원

2. 협력 사업

- 1) '나라사랑어머니회'와 함께 하는 빈곤지역 공부방 지원사업
 - 대 상 :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없는 공부방 5개~6개 (시범 공부방 포함).
 - 내 용 : 1. '나라사랑 어머니회'의 지원금 전액(약 6천만원)을 선정된 공부방에 전액지원.
 - 2.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형태로 지원.
 - 기 간 : 2005년 6월부터 2007년 4월까지 1년간.
- 2) 한국녹색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나눔의 숲 체험교실'
 - 서울, 수도권 공부방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휴양림에서 1박 2일의 숲 체험 프로그램 진행.

3. 자원개발 사업

- 1) Mr.Pizza와 함께 하는 피자 전달 및 개별아동 후원 사업
 1. 도움이 절실한 100명의 아동에게 1년간 매달 5만원의 장학금 전달.
 2. 전국의 256개 공부방에 직접 또는 무료식당으로 피자 전달.
- 2) 뉴욕생명과 함께 하는 사랑나눔기 캠페인(Charitable Giving)
 1. 보험 가입자가 본 단체를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하여, 그 보험금을 일시적인 기부가 아닌 사랑의 나눔 실천으로 연결.
 2. 뉴욕생명 직원, 봉사자들과 공부방을 연결하여 학습지도, 청소, 야외활동 등의 봉사.
 3. 여름, 겨울 2회에 걸쳐 공부방 캠프프로그램 진행.

4. 나눔 사업

- 1) 사랑의 간식나눔기
 - ▶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지속적인 지원.
 - ▶ 배분, 배달 자원봉사자의 적극 참여 유도 및 확대.
 - ▶ 5주년을 맞이하여 '사랑 나눔기 바자 한마당' 첫날, 감사모임 개최
- 2) 기증물품 나눔기
 - 한국은행, 기타

5. 모금 사업

- 1) 사랑의 떡국나눔기 활동
- 2) 사랑나눔기 바자 한마당
 - 매년 가을 이화여고에서 열리는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기금모금 바자로 정례화되었다. 공부방 어린이를 위한 행사도 함께 진행.



아침 일찍부터 나와 '사랑의 떡국 바구니'에 담길 떡국 재료를 바구니에 포장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사) '사랑의 친구들' '사랑의 떡국 나누기' 수지결산서

(사) '사랑의 친구들' (회장 김성수)은
지난 2006년 1월에 가진 제8회 "사랑의 떡국나눔기"
(허가번호:제2005-27호, 허가일자:2005년12월12일)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입		지출	
후원금	89,239,190원	떡국바구니 제작, 배포	67,300,180원
		'사랑나눔기' 사업비로 대체	21,939,010원
계	89,239,190원	계	89,239,190원

(사) '사랑의친구들' "사랑의 떡국나눔기"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관계장부 및 증빙서류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각 항의 내용과 상위 없음을 인증합니다.

2006. 2. 17.

감사 김철웅 공인회계사

'사랑의 떡국 나누기' 수혜자

<독거노인 등>

서 울 :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경기·인천 : 고양,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양주, 오산, 용인, 파주, 평택, 하남

지 방 : 경상, 전라, 충청

<독거노인이 있는 지역아동센터>

평 택 : 평택나눔, 포승

인 천 : 간석, 민들레, 부평, 새벽, 새봄, 샘터, 서로사랑, 숲송, 송림, 송현샘, 아깨동무, 오순도순, 화도마리, 햇살

안양·군포 : 기쁨, 달팽이, 안민

경 남 : 김해사랑, 남해로댐, 대산, 대성, 덕오, 두랑, 둔기, 미천, 밀알, 상미, 성내, 열린, 영오, 임마누엘, 지리산평화, 창대, 하늘사랑, 한빛, 화계

전 남 : 갈릴리, 고향사랑, 낙원, 목석죽, 별교원동, 백곡, 선유샘, 성산, 열린, 영남, 예담, 옥곡, 우수영, 원동, 주봉, 주산, 태인수표, 평화, 하늘, 함께하는, 현정

충남 서산시 : 미문, 방과후 푸른교실, 서정, 은포, 중앙의 셋별들

충북 제천시 : 도하, 아하

대 전 : 새나루공동체

<기타>

강화우리마을, 교통사고유자녀, 두레방, 라파엘의집, 살론의집, 정동제일교회 외국인노동자 등

2006년 사업설명회 및 공부방 교사들을 위한 워크샵

“문제행동 어떻게 지도할까?”

2월 27일~28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전국에서 34명이 참여한 교사 워크샵은 아동상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1박2일에 걸쳐 진행됐다.

2005년 진행된 사업에 대한 파트너 단체들의 평가를 들어보고 공부방 교사들을 대상으로 2006년 한 해 동안 펼쳐나갈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사) '사랑의 친구들'의 2006년 사업 설명회와 공부방 교사들을 위한 워크샵이 지난 2월 27일~28일 대방동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샵에는 전국의 공부방 교사 34명이 참가했다. 공부방 아동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부방 선생님들에게 아동상담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는 워크샵에 참여한 것이다.

교사 워크샵은 공부방 어린이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주제로 윤선아(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주간치료실), 김미선(특수교육학 박사, 이화여대 특수교육연구소) 씨가 맡아 1박 2일에 걸쳐 진행됐다. 첫째날에는 어린이들의 심리 및 행동 발달



영역의 정상 발달단계에 관한 이해를 돕는 여러 가지의 검사들을 소개하고, 행동 문제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분석의 과정과 공부방 교사들이 현장에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검사지를 만들어 봄으로써 학생들의 발달상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날에는 어린이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시키고 적절한 행동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방법과 교육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제 5차 공부방 어린이와 전문상담사와의 만남,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은 계속된다

3월 13일, 한남동 한국심리상담소에서 첫모임

‘행복은 누군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시작된 공부방 어린이와 전문 심리상담사의 만남 프로그램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 5차(2006년 3월~6월)의 첫모임이 3월 13일 한국심리상담소에서 있었다.



전문상담사와 공부방 어린이가 만나는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3월 13일 첫모임을 갖고 5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사) '사랑의 친구들'이 주최하고 한국심리상담소가 참여하는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위축된 공부방 어린이들과 전문 심리상담사가 이마를 맞대고 자신의 행복한 삶을 그려보고 해답을 찾아 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04년에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사랑의 친구들’ 프로그램 기획사업중의 하나이다.

이날 모임에는 심리상담을 신청한 공부방의 교사들과 심리상담을 전담할 전문상담사 50여 명이 참석해 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오리엔테이션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금옥 사무총장, 김인자 한국심리상담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오리엔테이션

은 청소년을 위한 YQTM(Youth Quality Management Training) 소개와 상담을 맡은 전문상담사와 해당 공부방 교사의 만남 등으로 진행됐다. 올해 상반기 동안 집단 심리상담을 신청한 공부방은 모두 17개 기관, 초등학교와 중학생 등 모두 143명이 상담에 참여한다.

내가 행복해지는 걸 배우기

책임감, 자기통제력 증대 집단훈련을 마치고

나는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보고 조금은 긴장되고 기대가 되었다. 또한 기대만큼 즐거운 시간이었을 월요일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다. 처음 시간에는 까불기도 하고, 말도 제대로 듣지 않았지만, 점차 바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배우니 너무 좋았다. 웃음을 가질 수 있었다. 내 옆사람, 주변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이라곤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난 이걸 배우고 나서 행복과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고, 화를 내는 건 우리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가족, 부모님, 친구 등이 나에게 무척 소중한다는 걸 깨우쳤다. 지금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알고 깨우친 것이다. 그리고 조금씩 내가 만들고 싶은걸 만들고, 전지나 종이에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을 때 정말 좋았다. 이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할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듯 재미있었다. 이처럼 마지막까지도 웃음을 주시고, 행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웃음과 행복 자유를 주셨으면 한다.

우리 때문에 화도 내고 싶으셨을 것이고, 짜증도 나실텐데 그런 내색 전혀 보이지 않으시고 항상 웃음을 지니셨던 선생님! 감사하고 또한 죄송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해주신 은혜 즐겁고 신나는 하루하루를 보낼게요~ 감사합니다.

서지영 (신원공부방)

전남 곡성, 경남 의령, 진주지역 공부방 어린이 서울 초청

“여기서는 서울이 다 보이네요!”

4월 26일~28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서울을 방문한 지방 공부방 어린이들이 어린이 뮤지컬 '하마가 난다'를 관람한 후 배우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경상남도과 전라남도 빈곤지역 공부방 어린이와 교사 등 84명이 서울나들이에 나섰다. (사) '사랑의 친구들'은 경제적 이유로 서울에 올 기회가 거의 없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방의 공부방 중 올해는 경남의 45명, 전남 48명의 어린이들을 4월 26일~28일 서울로 초청해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적 체험거리를 제공했다.

새벽부터 먼거리를 달려 서울에 도착한 어린이들은 경복궁의 왕궁수문장 교대식 관람을 시작으로 어린이 뮤지컬 '하마가 난다' 관람을 마치고 숙소인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여장을 풀었다. 저녁식사를 마친 어린이들은 흥겨운 레크리에이션으로 첫만남에도 불구하고 땀과 웃음 속에 서로의 얼굴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은 직접 케이크와 쿠키를 만들어 맛을 보는



(주)CJ가 후원한 제과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직접 케이크와 쿠키를 만들어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주) CJ에서의 베이킹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 생전 처음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본다는 어린이들은 자신이 만든 케이크와 쿠키를 비교해보며 행복한 표정. 오후에는 남산타워를 방문해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웃음꽃을 피웠다.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체험하는 신천동 삼성어린이박물관 탐험까지 하루를 보낸 어린이들은 숙소로 돌아와 미스터 피자가 제공한 도우쇼 구경과 신나는 피자파티로 둘째날을 보냈다.

마지막날은 어린이들이 가장 기다리던 놀이공원이 기다리고 있다. 용인 에버랜드에 도착한 어린이들은 평소에 타보고 싶었던 놀이기구를 향해 뿔뿔. 더운 날씨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한가지라도 더 타보고 싶은 마음에 걸음을 재촉했다.

지방 어린이들의 서울방문은 (사) '사랑의 친구들'

서울 나들이 정말 좋은 경험이었단 것 같습니다. 실무자인 저는 못 갔지만 다녀온 아이들과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제가 다녀온 것만큼 행복했습니다. 행사를 맡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향민 (원동지역아동센터)

이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행사로 미국에 살고있는 한국 여성들로 구성된 '나라사랑어머니회'와 극단 사다리, (주)CJ, 남산N서울타워, 삼성어린이박물관, (주)한국미스터피자, (주)모나미가 후원했다. 참여공부방은 목석죽, 원등, 현정, 백곡, 주산, 임마누엘, 멋진, 다복, 햇살, 천지, 푸른, 비전 등 12개 공부방이다.

(주)한국 미스터피자가 후원한 신나는 피자파티의 밤. 어린이들이 직접 도우쇼에 참여했다.



2박 3일간 짧은 일정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좋은 선물에 주신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아이들이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되어서 기쁘구요, 아이들도 많이 아쉬워하면서 즐겁게 돌아왔습니다. 귀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주신 사랑의 친구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승훈 (백곡공부방)



영남과 호남의 공부방 어린이들이 즐거운 레크리에이션으로 하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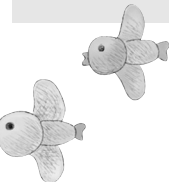
한국녹색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나눔의 숲 체험교실'

숲에서 배운다 - 4개 공부방 72명 참여해

5월 15일~17일, 경기도 양평 산음 자연휴양림에서



5월 17일~18일 양평산음자연휴양림에서 열린 '나눔의 숲 체험교실'에는 4개 공부방 72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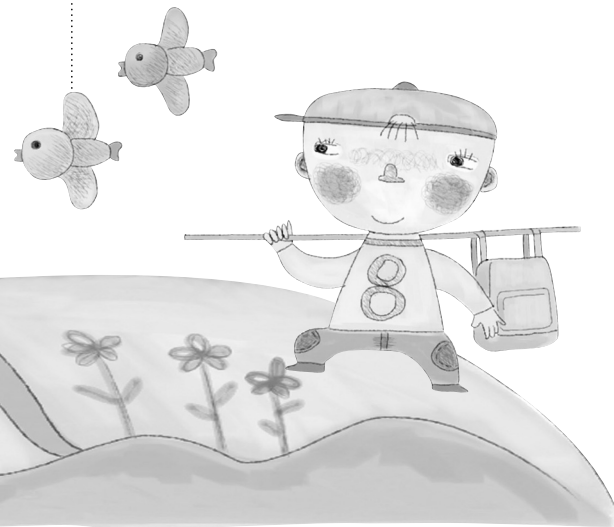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양평 산음자연휴양림에서 열린 '나눔의 숲 체험교실'에는 분도, 사랑, 삼산, 구세군, 4개 공부방 72명의 어린이가 참가해 숲과 자연으로부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삭막한 아스팔트의 도시를 벗어나 숲의 한가운데로 숙소를 정한 어린이들은 숲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나뭇잎과 꽃잎 등을 이용한 월드컵 응원 티셔츠 만들기로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녹색문화재단, 숲 해설 전문가 그룹과 함께하는 숲 체험, 어린이들만의 힘으로 주어진 과제를 완수해야 하는 추적놀이 등은 평소에는 관심가지기 어려웠던 숲과 숲에 살고 있는 수많은 작은 생명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색다른 시간이었다.

탐험과 체험활동으로 숲에서 밤을 맞은 어린이들



은 신나는 레크리에이션과 놀이를 통해 흥겨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집을 떠나 친구들과 하룻밤을 함

께 보내는 즐거운 추억 하나를 더했다. '나눔의 숲 체험교실'은 5월에 이어 10월에 한번 더 열린다. (*)



숲 체험 프로그램인 추적놀이를 통해 숲의 생태를 직접 경험한 어린이들이 체험담을 발표하고 있다.

〈2006 '나눔의 숲 체험교실'에 참가했던 어린이들로부터 온 편지〉

아름디움과 생명의 집합체 '숲'

출발할 때부터 마음이 설레었다. "얼마나 재밌을까?" 하면서 떠났다. 버스는 달리고 있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니 지루하기만 했다. 하지만 도착해서 우람한 나무들을 보고 맑은 공기를 마시자 집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흥분된 마음이 기분을 좋게 만들었다. 나뭇잎으로 티셔츠를 꾸미면서 나뭇잎이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 몰랐다. 나는 내 작품에 아주 만족했다.

그리고 추적놀이, 숲속 교실, 향기나는 식물, 보물찾기, 나무타령들을 하면서 숲에 대해 배우고 느끼니 아주 재미있고 좋았다. 정말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을 마치고 우리 집보다도 좋은 통나무집에서 잠을 자는 것도 흥분되었다.

이번 숲 체험을 통해서 숲에는 이렇게 내가 모르는 신기한 생물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숲의 중요성도 아주 많이 느꼈다.

우리에게 맑은 공기를 주고, 곤충들은 향기로운 꽃을 피우게 하고, 냇가의 곤충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신비함을 선사해 준다.

그것의 집합체가 바로 숲이다. 숲은 이렇듯 우리에게 소중하다. 해와 비는 식물의 양분이고 동물들은 그것을 먹고 우리에게 또 먹거리를 준다. 숲이 없으면 동물과 사람도 살 수 없다. 이렇듯 자연은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배 정현 (분도 공부방)

튼튼하게 자라서 숲을 아름답게 가꾸자

숲속 나눔 체험에 갔다. 그곳은 경기도 양평이었다. 우리는 가자마자 재미있는 것들을 보았다. 어떤 이상한 벌레, 이상하게 생긴 나뭇잎을 보았다. 나만의 T셔츠만들기를 하였다. 그래서 나뭇잎을 따서 아크릴물감으로 찍었다. 멋진 T셔츠가 되었다. 그리고 밤이 되었다. 우리는 레크리에이션을 한 뒤 숙소로 갔다. 다음날 아침 추적놀이를 시작했다. 일단 보물찾기로는 진흙, 나뭇잎, 지푸라기, 쭉, 벌레를 가져갔고 2번째로는 소리찾기를 하였는데 선으로 표현하는 것을 하였다. 그리고 3번째로는 나무타령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 가사는 이렇다.

나무들은 쭉쭉쭉쭉 커가고

꽃들은 예쁘게 피어가고

우리들은 튼튼하게 자라서

꽃들을 예쁘게 가꾸어가자

4번째로는 냄새나는 식물을 찾는 것이었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 식물은 생강나무였다. 냄새가 독하다고 불은 이름이다. 물도 1급수라서 도롱뇽, 연꽃, 돌나래 등등이 있었다. 그리고 숲이라서 기분도 너무 좋았다. 도시도 그렇다면 좋을텐데. 도시에 나무도 심고 삼투같이 물을 오염시키는 것들은 아껴써서 오염시키지 말아야겠다.

김선혜 (삼산 공부방)

Mr. Pizza와 함께 하는 사랑의 장학금, 피자 배달 올해도 이어져 신나고 맛있는 '사랑의 피자 파티'

(사) '사랑의 친구들' 과 한국 Mr. Pizza가 함께 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랑의 피자 나누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 Mr. Pizza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5,778편의 피자를 제공한데 이어 올 한 해는 총 8,000여 편의 피자를 함께 나누고 있다.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공부방 어린이 100명을 선정해 매달 장학금 5만원씩을 전하고 있다.

'사랑의 피자 나누기'는 전국의 Mr. Pizza 대리점에서 배달이 가능한 공부방에 격월 또는 분기별로 피자를 배달하고 배달이 불가능한 곳은 우편으로 쿠폰을 발송하여 정해진 지점에 직접 가서 먹거나 피자를 공부방으로 가져와서 먹을 수 있게 한 사랑나누기 사업이다.

이외에도 매장으로 공부방 어린이들을 직접 초대해 신기한 도우쇼 공연과 피자를 양껏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매장 초청행사를 병행하고 있다.



4월 21일 한국미스터피자 창동점에서의 전농방과후교실 어린이들의 피자파티.



5월 29일 코엑스1호점은 순종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초청해 피자파티를 열었다.

공부방 교사들로부터 온 편지

5월의 마지막 화요일 저희들은 사랑의 피자 파티를 했습니다. 배달하시는 분이 헉헉거리시며,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의 우리 공부방에 도착했을 때, 맛있는 피자 향기로 우리 공부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작년의 파티 이후 오랫동안 피자파티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행복에 잠기도록 했습니다. 두가지 맛의 피자는 금방 우리 아이들의 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행복해 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손제령 (아름다운 가정만들기)

아이들과 오늘 아침에 거북이 마라톤 대회를 한 후에 공부방에 와서 피자를 먹었습니다. 역시 아이들이 먹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만, 특히 피자를 무척 좋아하네요. 배불리 먹어서 좋았습니다.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아동센터에서나마 배불리 먹고 돌아가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왔으면 합니다. 기회를 주신 '사랑의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이진현 (진주 YMCA 천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피자 파티를 5월 30일에 하였습니다. 일주일전 부터 아이들이 어찌나 기다리던지 꼬마 아이들은 "선생님 이제 세 밤만 자면 되죠. 두 밤 한 밤" 장난치기 좋아하는 개구쟁이 녀석들이 피자먹을 때는 어찌나 조용하던지. 음료수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식을 준비하여 함께 맛나게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더운 날씨 건강하세요.

김영미 (에띠라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는 잔치였습니다. 탄성과 함께 그리 쉽지 않은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하여 마냥 행복해 하였습니다. 왜냐구요? 미스터 피자가 배달되어진거죠!!!! 마냥 행복해 하는 아이들과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 하는 교사들 함께 행복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을 선물해 주신 것에 대하여 그 행복이 아이들에게 잔잔한 물결과 같이 뭉게 구름과 같이 피어오르겠조! 그 행복을 나누어 드리지요. 모두 행복하세요. 정화자 (살롱공부방)

(사) '사랑의 친구들' 새 사무실 집들이

리모델링 공사 맡은 B&I 김연호 대표에 감사장 전달도

지난 5월 25일, (사) '사랑의 친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새 사무실의 뒤늦은 집들이가 열렸다.

이날 집들이에는 이희호 고문, 김성수 회장을 비롯해 '사랑의 친구들'을 소리없이 후원해 온 자원봉사자들, 후원회원, 운영위원과 이사들 등 80여 명이 참석해 새 사무실을 둘러보며

발전을 기원했다. 집들이는 간소한나마 정해진 식순에 따라 박금옥 사무총장이 집들이에 참석한 내외귀빈들을 고루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김성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집들이에 오신 분들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는 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고 있



김성수 회장이 새 사옥의 리모델링을 맡은 B&I 김연호 사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는 귀한 분들입니다"라며 집들이에 참석한 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이희호 고문은 격려사를 통해 "'사랑의 친구들'이 창립된 지 8년 만에 온전한 새 사무실을 마련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아낌없는 후원이 있었기에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앞으로도 (사) '사랑의 친구들'이 한결갈

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아주고 후원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 수고하여 준 B&I 김연호 사장에게는 감사장이 전달되었다. 마지막으로 이해동 목사가 '사랑의 친구들'의 발전을 기원하는 축도로 집들이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집들을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인희 • 김경오 • 김미령 (이대총동창회)
• 김연옥 (혜성전기통신) • 송홍연 (한국종이접기협회) • 성호정 (주)송학식품 • 수요포럼 • 외환은행역삼동지점 • 이대동창회 • 이색회 • 이주수 (프라임미트) • 이해동 (목사) • 임영숙 • 조남진 • 조세현 (사진작가) • 황순안 (자원봉사자) • 이영림 (한 의사) • 최선영 (이화여대 교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함정원 (자원봉사자) • 홍진주 (한국외대 교수)

화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제존타서울1클럽 • 김시은 (플로라) • 김윤광 (성애의료재단) • 김창실 (선 갤러리) • 김현숙 • 김혜수 (홍보대사) • 민병욱 (나라사랑어머니회 서울지부) • 박동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박권 (한림회계법인) • 오은환 (오은환 부띠끄) • 윤순희 (이대총동창회장) • 이선희 • 이준근 (주)부영

물품을 기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 • 이희호 (고문) • 경륜 운영본부 • 김성애 (자원봉사자) • 김정열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 노영혜 (종이문화재단) • 박현숙 (용명기업) • 성인숙 (이사) • 송수희 (자원봉사자) • 이경숙 (보리수) • 이순례 (이사) • 인재근 (이사) • 한용외 (삼성문화재단) • 최종욱 (전 '사랑의 친구들' 총재) • 황우권

2006. 1. 2 ~ 6. 30

(사) '사랑의 친구들' 의 활동보고

〈정기총회〉	제 8차 (2006. 2. 24)	
〈이사회〉	제 15차 (2006. 2. 24)	
〈운영위원회〉	제 82차 (2006. 2. 21)	제 83차 (2006. 3. 23)
	제 84차 (2006. 4. 25)	제 85차 (2006. 5. 25)
	제 86차 (2006. 6. 20)	
〈기획자문위원회〉	제 43차 (2006. 1. 9)	제 44차 (2006. 3. 8)
	제 45차 (2006. 5. 10)	

대한항공 · 아시아나 항공과 함께 하는 〈사랑의 간식나누기 10기〉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후원하는 사랑의 간식 나누기 10기 자원이 2006년 상반기 동안 이루어졌다. 6개월 동안 총 25회에 걸쳐 22개 공부방과 기관이 사랑의 간식을 함께 나누었다.

서울 :	나무를심는학교, 참나무방과후교실, 은천지역아동센터
충북 :	국사소로지역아동센터 국사공부방, 구세군꿈꾸는씨앗지역아동센터, 신나는지역아동센터, 청주북부지역아동센터, 남부지역아동센터
충남 :	서해아이들지역아동센터, 방과후푸른교실, 중앙의셋별들지역아동센터, 미문공부방, 지역아동센터 꿈이있는교실
전남 :	해남새터공부방, 해남꿈나무공부방, 샘터공부방, 해남화원면공부방
충북 :	아하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새재천공부방
강원 :	신천사랑지역아동센터
광주 :	지역아동센터 신원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외할머니덕공부방

나라사랑 어머니회와 함께 하는 〈2006 빈곤지역 공부방 연합캠프〉

개별공부방이 진행하기힘든 규모가 크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합캠프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모형태로 12개의 연합체를 선정, 지원한다.

	단 체 명	지 원 액
1	인천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 10개 공부방	5,970,000원
2	(사)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인천지부	5,388,000원
3	경남지역아동센터 서부경남지역 공부방연합	6,000,000원
4	천안지역아동센터연합회 8개 공부방	6,000,000원
5	성남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	5,000,000원
6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강원지부	5,000,000원
7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부산지역아동센터연합회	6,000,000원
8	전남지역아동센터 공부방연합회	6,000,000원
9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5,500,000원
10	대전지역 아동센터 5개 공부방	5,000,000원
11	수성, 경산 지역아동센터연합 공동체	5,000,000원
12	여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 5개 공부방	5,000,000원

3. 9 캠프 공고문 공지
4. 19 12개 연합체 선정

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사랑의 기증품 나누기〉

한국은행으로부터 컴퓨터와 복사기를 기증받아 이를 꼭 필요로 하는 전국의 공부방과 기관에 나누었다.

5. 3 총 26개 기관에 컴퓨터 123대 전달



한국은행과 함께 한 사랑의 물품 나누기.

컴퓨터 나누기

서울 :	새빛지역아동센터	강서밝은공부방
	어린이꿈터포물왕국	
경기 :	하늘터지역아동센터	퇴계원지역아동센터
	모현반석지역아동센터	안산시지역아동센터 스스로, 함께
	서평택지역아동센터	하늘그림공부방
	상동사랑교회	원미공부방
대전 :	남대전지역아동센터	대전열린지역아동센터
충남 :	미문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푸른교실 지역아동센터
	꿈자리지역아동센터	장암지역아동센터
충북 :	영동지역아동센터	큰사람지역아동센터
전북 :	꿈꾸는세상 지역아동센터	
전남 :	주봉공부방	
부산 :	낙동지역아동센터	
대구 :	예따라기 지역아동센터	
경북 :	큰사랑지역아동센터	
경남 :	교동공부방	
복사기나누기		
경기 :	퇴계원지역아동센터	
대전 :	눔지역아동센터	예달지역아동센터
경북 :	무지개지역아동센터	큰사랑지역아동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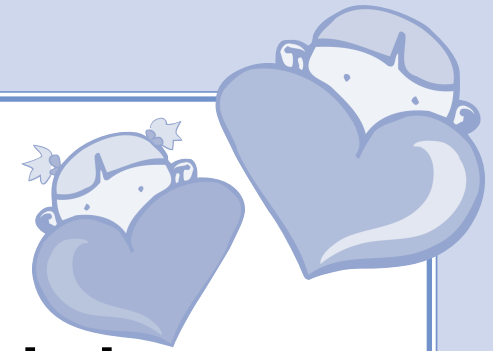
국민은행 청운동지점과 함께 한 〈어린이 경제교육〉

4월 22일 국민은행 청운동 지점 임직원들이 휴무일인 토, 일요일을 이용해 인근 지역의 공부방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경제교육'을 실시했다. 종로구 한누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열린 경제교육은 국민은행 청운동 지점에서 준비한 각종 비주얼 자료와 재미있는 퀴즈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개념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교육 후에는 준비해간 간식을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국민은행 청운동 지점의 어린이 경제교육.

사랑의 친구들 바자가 9월 23일~24일 열립니다



2006년 (사) '사랑의 친구들' 바자가 9월 23~24일 서울 정동 이화여고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아홉번째 바자입니다.

지난 98년 8월 창립된 (사) '사랑의 친구들'은 매년 빈곤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기금 모금을 위한 '사랑나누기 바자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눌 때 이 세상은 좀 더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바자 한마당'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사랑이 더해집니다.

'사랑의 바자 한마당'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알뜰구매와 빈곤어린이 돕기를 함께 좋은 물건, 좋은 가격, 명성 높은 바자!!

- * 장호원 복숭아, 영광굴비와 모시잎떡, 신안 미역과 다시마, 소금, 해남 밤고구마, 고창 고추 등 질 좋은 지방 특산품이 가득!
- * 외국에 사는 한국 어머니들이 현지에서 구입한 세계적 명품을 놀랄만한 가격으로!
- * 다양한 건강식품으로 웰빙의 식생활을!
- * 청담동 일급 디자이너의 의류, 주방용품, 가전 및 생필품 등을 최고 60~70% 싼 가격으로
- * 가벼운 마음으로 추석선물과 가을준비도 이곳에서 끝내세요

'2006년 빈곤아동돕기 사랑나누기 바자 한마당'

- * 일 시 : 2006. 9. 23(토)~24(일), 오전 10시~오후 5시
- * 장 소 : 서울 정동 이화여고 류관순 기념관 및 앞뜰
- * 주 최 : (사) '사랑의 친구들'
- * 후 원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나라사랑 어머니회, '사랑의 친구들' 후원회

